

특류세평 이대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학문에 대한 융합적 접근방법의 필요성



대학은 학생이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자유로이 연구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하고, 학생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기르고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게 된다. 현재 학생들은 대체로 하나의 전공 분야만을 학습하고 있고, 대학도 다양한 분야의 학문 연구를 대상으로 하는 ‘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체제로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격의 사회적 현상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며, 창의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먼저 사회적 현상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NFT(대체불가토큰)를 예로 들어 논의해 보자. NFT 생성(민팅)은 기술적으로 컴퓨터공학의 영역에 속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학, 경제학, 경영학 등 여러 분야의 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작년 박수근 화백의 ‘두 아이와 두 엄마’ 등의 작품에 대하여 NFT를 발행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곧 중단되었다. 바로 저작권 문제 때문이었다. NFT 생성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행위와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를 규율하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NFT의 핵심적인 구성 부분인 스마트 계약에는 계약법이 적용될 수 있다. 컴퓨터공학을 연구하는 학생이 법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도 법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와 반대로 NFT의 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 작성, 해시함수, 파일의 IPFS 업로드, 민팅(NFT 생성), 스마트 계약, 작업증명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법적인 측면에서 컴퓨터공학의 기술적인 측면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NFT에 대해서는 컴퓨터공학과 법학에 한정하지 않으며, 경제학, 경영학등의 분야에 대한 학습도 필요로 한다. 더군다나 융합적 접근방법은 NFT에 한정하지 않으며, 인공지능, 가상자산(암호화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케어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현상에 모두 요구된다. 심지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철학, 윤리학 측면의 접근방법도 필요로 한다.

대학에서 하나의 전공만으로 사회적 현상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사람은 주로 이미지를 통해 학습한다. 우리 마음속은 관심을 끌고자 하는 수만 가지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일부분만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대학에서 한 분야만을 전공하면 여러 분야를 서로 연결해 어떠한 현상을 광범위한 시각에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기 어렵게 된다.

현대사회의 사회적 현상은 이러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정작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셈인데, 대학 사회에서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는 속담은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이 된다.

다양한 분야의 학문에 대한 학습은 창의성의 신장과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혁신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스티브 잡스는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잡스는 기술 분야에 창의성을 접목한 선구자로 추앙받고 있는데, 이는 Reed College에서 철학을 공부 하였던 잡스가 글씨의 시각적 디자인을 다루는 ‘캘리그래피’ 강좌를 청강한 것에서 비롯된다. 잡스의 캘리그래피 학습은 10여 년 후 아름답게 디자인된 글씨체가 매킨토시 컴퓨터를 통하여 세상에 처음으로 나오게 된 동력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잡스의 창의력을 신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잡스 자신도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이를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

창의성 있는 인재는 다양한 분야의 학습이나 경험에 의하여 양성된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은 제한된 시간이나 시각(視覺)으로 인하여 자신의 창의성을 발현시키지 않고 ‘리더’를 따라가는 경향을 가진다.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여러 학문 분야를 학습·연구하여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은 융합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학생들도 여러 학문 분야에 자신을 노출해야 한다. 이에 의하여 창의성으로 무장한 인재가 수만, 수십만 일자리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업도 만들게 된다.

‘냉전’(冷箭)은 숨어서 쏘는 화살이란 뜻으로 고대신문 동인이 씀니다. 冷箭

“두 시간 안에 영감이 볼 수 있게 준비해 뒀.” 선임의 말에 머리가 아프다. 시간도 촉박하고 자료도 미비하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읽어도 알아먹을 수 있게 보고서를 써내야 한다.

여의도 보고서는 무학자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빈말이 있다. 그만큼 쉽게 간략하고 핵심만 짚어 내야 한다. 단어에 각주는 기본이고 정말로 친절한 글을 써내야 한다. 한때는 나만 알아보는 글을 많이 썼다. 내 지식을 통째로 글에 옮겨 잘난 체하고 싶었

계속 점검하고 수정한다. 특히 법안 내에 잘못된 수식어나 형용사는 용납될 수 없다. 만약 오발탄이 된다면 ‘이모 교수’가 ‘진짜 이모’가 되는 마법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곳이 재밌는 이유도 있다. 정당정치로 갈려져 있지만 다른 건 모두 일심동체다. 양당이 대표적으로 외쳐대는 과제도 잘 살펴보면 같은 말이다. 정책을 만들어가는 큰 방향과 결론은 늘 비슷한 선상에 있다. 다만 그 실현 과정과 예산 분할을 놓고 치열하게 싸운다. 그 싸움의 주무기는 ‘보고서’이다. 글자

## ‘여의도 보고서’

나 보다. 하지만 여기서 글이 어려우면 욕먹는다. 한 번은 ‘휴먼명조’ 글씨체를 쓰지 않아 지적당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선배의 말이 그 영감은 그 글씨체가 아니면 보고서를 대충 읽는다고 한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나는 한글을 키bern 설정부터 바꾼다. 16pt 제목 맑은고딕, 본문 휴먼명조, 습관이 무섭다. 지금 원고를 써내는 글씨체도 휴먼명조다. 여기서 보고서는 전쟁에 나서는 군인의 총알과 같다. 적진에 가기 전 내 보고서가 실탄인지 오발탄인지

하나와 억양으로 간사들과 영감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여의도 보고서는 더욱 쉬워져야 한다. 보고서의 독자는 ‘의원’이 아닌 ‘국민’이라 생각해야 한다. 지지받기 위한 연설보다 간결한 문장 하나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여의도 보고서가 해야 할 일이다. 긴말은 필요 없다. 이제 국민과 보고서로 이야기하길.

(strong)

### 카메라사계



### 계절의 끝자락에서 빛나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여름과 가을의 교차점에서 반포한강공원은 유난히 빛난다. 서울 밤도깨비야시장이 3년 만에 ‘한강달빛야시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달빛광장을 수놓은 노란빛 부스들과 그 옆 푸드트럭의 행렬, 그리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 계절의 끝자락에서 이들은 한데 어우러져 낭만적인 야경을 만들어낸다. 양수현 기자 positive@



高FLIX는 고대인이 애정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무지개 끝, 황금보다 찬란한 비극



《플로리다 프로젝트》

별점: ★★★★★

한 줄 평: 무지개빛 포장지로 감싼 가장 해맑은 씬슬함

프로젝트(Florida Project)’를 소개한다.

주인공 무니가 스물두 살 엄마 ‘헬리’와 함께 사는 모텔 매직 캐슬은 홈리스들이 주 단위로 장기 투숙을 하며 살아가는 주거지다. 보랏빛 페인트가 칠해진 알록달록한 건물에서 무니는 친구들과 함께 악동 짓을 일삼으며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아이들이 바라보는 즐겁고 다채로운 세상을 한 꺼풀 벗겨내면 범죄, 빈곤, 폭력과 갈등이 모습을 드러낸다. 아이들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모험과 놀이로 채워질수록, 어른들은 새로운 고난과 역경을 맞이한다. 헬리는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아동보호국의 조사를 받게 되고, 무니는 헬리에게서 떨어져 위탁 가정에 맡겨지게 된다. 도망친 무니는 젠시에게 달려가 이제 다시는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면 울고, 이야기를 가만히 들던 젠시가 무니의 손을 잡고 디즈니월드의 진짜 ‘매직 캐슬’로 달려가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영화가 흘러가는 내내, 35mm 필름으로 담아낸 아름다운 영상미와 활기찬 아이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씬슬함이 가시질 않는다. 어둡고 우울한

현실을 알록달록 예쁜 포장지로 감싸 보여 주는 느낌이 든다. 바로 옆에 위치한 줄거움마법의 세계 디즈니월드는 이 대비를 더욱 강화한다. 현실은 이토록 비극적이던데, 그 현실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은 너무나도 맑고 순수해 더욱 잔혹하다.

무니는 무지개 끝에 황금이 있다고 말했다. 온통 보랏빛으로 칠해진 매직 캐슬은 마치 무지개의 끝처럼 보인다. 매직 캐슬엔 아이들에게 황금처럼 소중한 추억과 관계들이 있다. 현실은 알록게도 아이들에게서 이를 찾아 가려 하지만, 아이들은 무지개 끝 요정을 때려눕힐 기세로 현실에 맞선다. 디즈니월드의 매직 캐슬로 달려가는 희망찬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마지막 장면과는 달리, 그 후 이어질 이야기는 결코 밝고 아름답지 않을 것임을 관객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무니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처럼, 결국 아이들은 자라날 것이다. 무니가 그 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를 덧붙이며, 아이들의 미래가 화창한 올랜도의 여름이기를 소망해 본다.

“내가 왜 이 나무를 제일 좋아하는지 알아? 쓰러졌는데도 계속 자라서.”

정연우(미디어21)

### LATTE고신

Latte 고신은 과거 요맘때, 고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1947년 11월 3일

2007년 9월 10일  
1568호

2022년 9월 5일

## 문과대 학생회 ‘과제돌려받기’ 운동 시작

문과대 학생회(회장=육태민·문과대 사회04)가 이번 2학기부터 ‘과제돌려받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40대 문과대 학생회의 공약 중 하나인 ‘과제돌려받기’는 ‘학습권 운동’이라는 부제 아래 진행된다. 대형 강의와 교수와 학생들 간의 소통을 축소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최근 ‘과제돌려받기’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연세대 문과대 학생회, 아주대 경영대 학생회 등 많은 대학의 학생회들이 이와 비슷한 운동을 진행 중이다.

문과대 학생회는 ‘과제돌려받기 홈페이지(nokdoo.net/report)’를

개설하고 과제평가표와 스티커를 자체 제작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다.

또한 지난 학기 문과대학의 교수들 전체에게 ‘과제돌려받기’의 취지와 진행방식을 설명하는 메일을 발송해 고원(문과대 노어노문학과)교수와 김태연(문과대 노어노문학과)교수로부터 적극 동참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과제돌려받기’ 운동의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학생이 과제물에 스티커를 붙이고 평가지를 함께 제출하면 교수가 과제 전반에 대한 형식을 해 풀려주는 방식이다.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제평가표와 스티커는 서관 및 학교 곳곳에 비치될 예정이다. ‘과

학교 곳곳에 비치될 예정이다. ‘과제돌려받기’ 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내에 부착된 포스터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다.

또한 문과대 학생회는 오늘(10일)부터 ‘과제돌려받기’에 대한 학생들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녹두 INTO’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문은 문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육태민 문과대 학생회장장은 “학습권은 학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며 교수들의 지지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학습권 신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

#과제돌려받기\_운동 #교수의\_과제\_첨삭 #학습권\_보장

배연수 기자 ysbae@